



5면

기술이전·기술금융 지원 강화 업무 제휴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음 3월 27일) 제300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022년도 상반기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기업 간담회

· 일 시 : 2022. 4. 26(화) 15:00 · 장 소 : 전라북도청 종합상황실(4층)

전북도가 신원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주)유니테스트, (주)네모이엔지 등 재생에너지, 전기차 분야 새만금산업 투자기업 9개사가 참석했다.

‘새만금산업단지 투자 차질 없이’

전북도, 투자기업 간담회 열고 애로사항 등 논의
신원식 정무부지사 “환경 개선·경영안정 견인 최선”

전북도가 신원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주)유니테스트, (주)네모이엔지 등 재생에너지, 전기차 분야 새만금산업 투자기업 9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경기불황과 투자심리가 위축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새만금산업 투자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상호 간에 정보공유와 대안모색을 통해 기업들의 새만금산업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신속 추진, 전문인력 수급 지원 및 전문화 교육 요청, 세계지연, 근로자 정착 지원 및 새만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구축, 자금지원 등 투자 진행 과정에서 느꼈던 궁금증과 기업 경영 애로사항 등을 문의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세계지연 혜택,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사업, 새만금산업단지 편의시설 공급계획,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안내하는 등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상부유체 제조기업들은 조속한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도는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해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 경영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만금산업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기업의 경영안정 견인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작년 2차례 새만금산업단지 투자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안전검사 인인 증원 등 31건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28건을 완료하고, 3건을 추진 검토 중이다. /유호상 기자

변산에 관광숙박시설 들어선다

전북도-부안군-자광홀딩스, 투자협약 체결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건립 2004억 투자

(주)자광홀딩스가 전라북도에 2,004억원의 관광숙박시설(관광휴양콘도미니엄) 투자를 결정했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26일 도청 종합상황실(4층)에서 조봉업 행정부지사, 김중택 부안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자광홀딩스 전은수 대표와 관광숙박시설(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미니엄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시설은 오는 2024년까지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에 관광휴양콘도미니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4만3,887㎡이며, 총사업비는 2,004억원이다.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79개 객실 규모(리조트동 74 객실, 프라이빗빌라 5객실)에 7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으로 (주)자광홀딩스는 전북도민 우선 채용 및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등록, 회의 유치 등 전북도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전북도는 투자완료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주)자광홀딩스는 이번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건립사업 뿐 아니라, 도내 타 지역에도 관광휴양콘도미니엄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전북도의 체류형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관광사업 투자협약은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하던 전북도에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속하는 것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변산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와 체



전북도와 부안군은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조봉업 행정부지사, 김중택 부안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자광홀딩스 전은수 대표와 관광숙박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류형 관광 확대를 전북도 관광산업을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숙박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관광사업 투자협약

을 맺은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협약을 통해 2014년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과 2019년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 그리고 2020년 무주 나뭇리조트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소요비용 지원
도, 올 국내인증 17종 취득기업 대상 최대 80%까지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혁신기업의 혁신제품 신뢰성 향상 및 공공기관 판로 확대를 위해 2022년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내 소재 혁신성장 산업분야 중소기업 중 올해 국내인증 17종 등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품질성능 검사비, 인증 수수료 등 제품 인증취득 소요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증취득 의지가 있는 도내 기업들에 대해 전북 TP의 기술닥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인증제품 신청을 위한 제품 규격서 작성 방법을 지도하고, 전년도 10~12월 취득한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을 새로이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26개 기업의 인증취득을 지원해 인증취득 제품 관련 매출 31억4,000만원 증가와 신규 2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 중 8개 기업은 공공기관 매출이 23억이었고, 특히 녹색기술을 취득한 A사는 6억5,000만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

이번 사업은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공고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R&D종합정보시스템(<https://md.jtp.or.kr>)에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https://www.j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IMSIL-GUN
임실군

섬진강 르네상스가 열립니다